KBS 교향악단

KBS S.O. 832nd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2026.11. 28.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 02-6099-7400
F 02-6099-7416
H www.kbssymphony.org
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Program

바버 **S. Barber**	**현을 위한 아다지오** **Adagio for Strings**	09′
슈만 **R. Schumann**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129** **Cello Concerto in a minor, Op. 129** I. Nicht zu schnell 너무 빠르지 않게 II. Langsam 느리게 III. Sehr lebhaft 매우 생기 있게	27′
인터미션	**Intermission**	15′
림스키-코르사코프 **N. Rimsky-Korsakov**	**셰에라자드, 작품 35** **Scheherazade, Op. 35** I. The Sea and Sinbad's Ship 바다와 신드바드의 배 II. The Story of the Kalendar Prince 칼렌다르 왕자의 이야기 III. The Young Prince and the Young Princess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IV. Festival at Baghdad – The Sea – The Ship Breaks against a Cliff Surmounted by a Bronze Horseman 바그다드의 축제 – 바다 – 청동 기마상이 서 있는 바위에 부딪혀 난파하는 배	45′

✣ 총 소요시간: 100분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atthew Holler

지휘 잔카를로 게레로

그래미상을 여섯 차례 수상한 잔카를로 게레로는 시카고 트리뷴이 호평한 ‘프로그램 구성과 해석의 창의성’과 역동적인 음악성으로 주목받는 지휘자다. 현재 사라소타 오케스트라 음악감독과 시카고 그랜트 파크 뮤직 페스티벌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내슈빌 심포니 명예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내슈빌 심포니에서 16년간 음악감독으로 재임하며 악단의 예술적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과 현대음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20여 곡의 신작을 초연했고, 24장의 음반을 발매했다. 이 음반들은 그래미상 후보에 13차례 올라 여섯 차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6 / 27 시즌에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에 다시 초청되며,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리건 심포니, 볼티모어 심포니,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를 객원 지휘한다. 해외에서는 갈리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브뤼셀 필하모닉, 프랑크푸르트 무제움 오케스트라,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한다. 그동안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유럽과 북미, 호주의 주요 오케스트라와 폭넓게 협업해 왔다.

니카라과에서 태어나 코스타리카에서 성장한 게레로는 차세대 음악가 양성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커티스 음악원, 콜번 스쿨, 줄리아드 스쿨, 카네기홀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NYO2, 예일 필하모니아 등과 함께했으며, 내슈빌 심포니의 음악교육 프로그램 ‘Accelerando’에도 참여하는 등 젊은 음악가들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Giancarlo Guerrero

Conductor



©Jacky Lepage

첼로 스티븐 이설리스

영국 출신의 첼리스트 스티븐 이설리스는 독주자, 실내악 연주자, 작가, 교육자, 방송인으로 세계 무대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왔으며, 존 태브너의《보호의 베일》, 토머스 아데스의《되찾은 장소들》을 비롯해 죄르지 쿠르탁, 하인츠 홀리거, 외르크 비트만 등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세계 초연했다.

방대한 음반 목록을 자랑하는 그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으로 그라모폰 어워즈 '올해의 기악 음반상'을 수상했으며,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과 마르티누의 첼로 소나타 음반으로 두 차례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 존 태브너의 후기 작품을 세계 최초로 녹음한 음반으로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의 초연 음반상을 수상했으며, 2024년에는 조슈아 벨, 제러미 덴크와 함께한 멘델스존 피아노 삼중주 음반과 보케리니의 첼로 작품집을 발매했다.

저술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출간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해설서는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어린이를 위한 두 권의 음악 서적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슈만의《젊은 음악가를 위한 조언》에 대한 해설서도 집필했으며, BBC 라디오에서는 슈만과 하포 마르크스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직접 집필하고 진행했다.

독창적인 기획력과 음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런던 위그모어 홀, 뉴욕 92번가Y,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에서 공연 시리즈를 기획해 왔다. 첼로를 연주하며 오케스트라를 직접 이끄는 활동도 펼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피아니스트 라두 루푸의 마지막 공개 연주 무대를 이끌었다.

1998년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장 3등급(CBE)을 수훈했으며, 미국 피아티고르스키상과 독일 글라슈테 오리지널 음악제상을 수상했다. 1997년부터 영국 콘월의 프러시아 코브 국제 음악가 세미나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현재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대여받은 1726년 제작 스트라디바리우스 첼로 '마르키 드 코르베롱'을 사용하고 있다.

Steven Isserlis

Cello



그래미상을 여섯 차례 수상한 지휘자 잔카를로 게레로가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무대에 오른다. 내슈빌 심포니를 16년간 이끌며 폭넓은 레퍼토리와 역동적인 음악성으로 주목받아온 게레로는 이번 공연에서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색채와 표현력을 만끽할 수 있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셰에라자드>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오케스트레이션의 대가로 손꼽히는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이 곡에서 갖가지 마법과 같은 음향을 만들어낸다. 매일 밤 술탄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셰에라자드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로 표현되고, 묵직한 금관악기는 술탄의 위엄을 드러내며, 다채로운 타악기는 축제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강렬한 에너지와 생동감 넘치는 음악으로 오케스트라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레로의 지휘를 통해 <셰에라자드>의 화려한 관현악적 색채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를 모은다. 이번 공연 전반부는 현악의 서정성을 보여주는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로 시작해 슈만의 첼로 협주곡으로 이어진다. 첼로를 연주할 스티븐 이설리스는 섬세한 감성과 내면의 열정을 담은 연주로 유명한 만큼 슈만 첼로 협주곡과 잘 어울리는 첼리스트다. 특히 이설리스의 슈만 음반은 시적인 상상력과 절제된 감성이 담긴 연주로 호평받은 만큼,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서도 깊이 있는 연주를 기대해볼 만하다.



바버 / 현을 위한 아다지오
S. Barber / Adagio for Strings

작곡 1936년 원곡, 1938년 현악합주 편곡
초연 1938년 11월 5일, 미국 뉴욕 NBC 스튜디오 8H
편성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연주시간 약 9분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영화 〈플래툰〉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더욱 유명해진 곡이다. 현악의 풍성한 화음과 애잔한 선율은 이 영화를 위해 작곡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감성적이지만, 본래 이 곡은 바버가 1936년에 완성한 현악사중주 중 제2악장이다. 바버는 스스로도 이 사중주곡의 제2악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지 이 곡만 따로 떼어 현악합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했다. 그리고 '현을 위한 아다지오'라는 제목을 붙였다.

아마도 명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요청이 없었다면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오늘날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바버가 현악사중주를 작곡한 지 2년 후인 1938년, 명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연주할 만한 미국적인 음악 작품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바버는 그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악보를 보냈고, 토스카니니는 그해 11월 5일 NBC교향악단과 함께 이 곡을 초연했다. 초연 당시 이 곡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으나 《뉴욕 타임스》의 음악평론가 올린 다운스는 이 곡에 대해 "선율과 형식의 훌륭한 조화가 돋보이며, 절정 부분의 단순한 화음과 음형이야말로 이 곡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바버의 곡에 만족했는지 이후 남미와 유럽에서도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몇 차례 더 선보였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명지휘자 유진 오먼디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카네기홀에서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연주하면서 이 곡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초연 당시의 엇갈린 평가와는 달리 오늘날 이 곡은 감미로운 선율과 강렬한 서정성으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 명곡으로 자리매김했고,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또한 이 곡은 사실상 미국의 '공식 애도 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5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서거를 알리는 방송을 시작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추모하는 자리 등 국가적 애도의 순간에 자주 사용되었고, 1982년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비 장례식에서도 연주되어 유족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현악합주를 위한 작품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곡이다. 여러 성부로 분할된 현악기들은 여러 겹의 음향 베일을 만들어내면서 풍부한 화음을 이루기 때문에 현악합주 특유의 풍성하고 부드러운 음색이 잘 살아난다. 이 곡의 주제 선율 자체는 성가풍의 명상적이고 초연한 성격이 있지만, 그 선율이 발전되는 방식은 매우 드라마틱하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선율의 움직임이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면서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놀랍다.

슈만 /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129
R. Schumann / Cello Concerto in a minor, Op. 129

작곡 1850년 10월
초연 1860년 4월 23일, 독일 올덴부르크
편성 독주 첼로,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2, 트럼펫 2,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27분

로베르트 슈만이 첼로 협주곡을 작곡한 1850년은 작곡가에게 매우 특별한 해였다. 오랜 세월 작곡가로 활동해 오던 슈만은 바로 그해 뒤셀도르프의 음악감독 자리를 제안받고 새 일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1850년 9월 2일 슈만이 뒤셀도르프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은 새 음악감독을 열렬히 환영했고, 슈만은 영감에 가득 찬 상태로 여러 걸작을 쏟아냈다.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1850년 10월, 슈만의 위대한 창작 시기에 완성되었다. 이로써 하이든이 첼로 협주곡 D장조를 작곡한 지 60여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첼로 협주곡 분야의 귀한 작품이 탄생했다. 첼로 협주곡이 완성되자 누구보다 기뻐한 이는 바로 슈만의 부인이자 피아니스트인 클라라 슈만이었다. 클라라는 이 첼로 협주곡이 "진정으로 첼로에 맞는 스타일로 작곡된 작품"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로베르트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곧바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1854년 악보가 출판되었지만, 슈만은 끝내 자신의 작품이 연주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1856년 세상을 떠났다. 이 곡은 작곡된 지 약 10년이 지난 1860년에야 비로소 연주되기 시작했다. 그해 4월 23일 독일 올덴부르크에서 첼리스트 루트비히 에베르트의 연주로 소개되었고, 6월 9일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슈만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에서도 연주되었다. 비록 초연은 늦어졌지만, 이 협주곡은 후대의 음악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끌었다. 1963년에는 러시아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이 작품을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편곡하기도 했으며, 오늘날에도 여러 첼리스트가 슈만의 첼로 협주곡을 꾸준히 연주하고 있다.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첼로를 대단히 섬세하게 다룬 특별한 협주곡이다. 아마도 본래 이 곡이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회의 소품(Konzertstück)'으로 의도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이 곡은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길고 웅장한 협주곡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었기에, 이 곡에서 첼리스트는 마치 실내악을 연주할 때처럼 오케스트라와 섬세하게 앙상블을 이루어야 한다.

I. Nicht zu schnell
제1악장은 목관악기의 짧은 서주에 이어 곧바로 첼로 독주가 등장하며 시작한다. 처음에 들려오는 서정적 선율과 이어지는 활기찬 주제가 갈등을 일으키며 긴박감을 조성한다.

II. Langsam
제2악장은 제1악장 후반부의 바이올린 선율에 이어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이 악장은 슈만의 예술가곡과도 같은 서정성의 극치를 보여주며, 후반부에는 템포가 점차 빨라지면서 제3악장으로 이어진다.

III. Sehr lebhaft
제3악장은 전체 오케스트라가 짧고 강한 음표들을 연주하며 시작한다. 음악 전반에서 열정적인 성격과 넘치는 생기가 전해진다.

림스키-코르사코프 / 셰에라자드, 작품 35
N. Rimsky-Korsakov / Scheherazade, Op. 35

작곡 1888년 여름
초연 1888년 10월 2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편성 피콜로 1, 플루트 2(제2주자 피콜로 겸주), 오보에 2(제2주자 잉글리시 호른 겸주),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1,
팀파니, 큰북, 작은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탬버린, 탐탐, 하프 1, 현5부
연주시간 약 45분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셰에라자드〉는 한때 해군 장교였던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경험이 풍부하게 녹아 있는 작품이다. 이 곡에서는 '바다'의 모티브가 중심이 되며, 파도를 연상시키는 풍성한 관현악이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는다.

이 곡의 제목 '셰에라자드'는 '아라비안나이트'의 여주인공 이름이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등장하는 술탄 샤리아르는 아내에게 한 번 배신당한 이후 "여자란 믿을 수 없고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물로, 어떤 여자든 결혼한 다음 날 신부를 죽이는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더 이상 신붓감을 찾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한 대신의 영리한 딸 셰에라자드가 자청해서 왕과 결혼했다. 그녀는 결혼 첫날밤부터 술탄에게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마침내 술탄의 사랑을 받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셰에라자드가 왕에게 들려준 여러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 악장으로 구성된 교향적 모음곡 〈셰에라자드〉를 작곡했다. 전곡은 1888년 여름에 완성되어 그해 10월 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되었다. 제1악장은 '바다와 신드바드의 배', 제2악장은 '칼렌다르 왕자의 이야기', 제3악장은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제4악장은 '바그다드의 축제 – 바다 – 청동 기마상이 서 있는 바위에 부딪혀 난파하는 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곡에 걸쳐 아름다운 바이올린 독주가 등장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 바이올린 선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주인공 셰에라자드를 상징한다.

I. The Sea and Sinbad's Ship
제1악장 '바다와 신드바드의 배'의 도입부에 들려오는 바이올린 선율을 잘 들어보면 마치 셰에라자드가 "인자하신 임금님, 그럼 어젯밤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셰에라자드

의 아름다운 선율에 비해 술탄 샤리아르의 선율은 금관악기로 크게 연주되어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 흥미롭게도 술탄의 포악한 주제는 셰에라자드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부드러운 바다의 주제로 변형된다. 마치 술탄이 셰에라자드의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드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II. The Story of the Kalendar Prince

제2악장은 '칼렌다르 왕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칼렌다르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수도승이 되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닌다. 칼렌다르 왕자의 갖가지 모험과 희로애락의 감정이 때로는 경쾌한 선율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난폭한 선율로 표현되기도 한다.

III. The Young Prince and the Young Princess

제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는 현악기의 낭만적인 선율로 시작한다. 처음에 현악기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주제를 연주하면서 부드럽고 감미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잠시 후에는 사랑을 이룬 두 연인의 기쁨을 나타내듯 경쾌한 음악이 들려온다.

IV. Festival at Baghdad – The Sea – The Ship Breaks against a Cliff Surmounted by a Bronze Horseman

제4악장은 전 악장 가운데 가장 화려한 느낌을 주는 곡이다. '바그다드의 축제'와 '바다', 그리고 '난파' 장면이 다채로운 오케스트라의 음향으로 표현되어 있다. 탬버린과 트라이앵글, 심벌즈 등 여러 타악기의 경쾌한 리듬이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제4악장 말미에서 셰에라자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술탄의 완고한 마음도 누그러진다. 이제 술탄은 셰에라자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다. 제4악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난폭했던 술탄 샤리아르의 주제가 저음 현악기로 부드럽게 연주되고, 셰에라자드를 나타내는 바이올린 선율도 마치 그녀의 행복을 나타내듯 평화롭게 마무리된다.

글 | 최은규 (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KBS교향악단 70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KBS S.O. 70TH ANNIVERSARY
YEAR-END
CONCERT
CHORAL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5번 E♭장조, Op.73 '황제'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 5 in E-flat Major, Op. 73, 'Emperor'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d단조, Op. 125 '합창'
L. v. Beethoven /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2026. 12. 24.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조너선 노트, 피아노 / 손민수
소프라노 / 박소영, 메조소프라노 / 이단비, 테너 / 손지훈, 바리톤 / 유한승
고양시립합창단, 서울시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제833회 정기연주회

70년의 만남
ENCOUNTER
AT SEVENTY





지휘 / 조너선 노트, 피아노 / 백건우
소프라노 / 박소영, 메조소프라노 / 이단비
테너 / 손지훈, 바리톤 / 유한승
고양시립합창단, 서울시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25번 C장조, K. 503
W. A. Mozart / Piano Concerto No. 25 in C Major, K. 503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d단조, Op. 125 '합창'
L. v. Beethoven /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2026. 12. 30. Wed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이수연 배소희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정지수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최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상우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이재원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David Coucheron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비올라 황여진 수석
플루트 권혜진 수석
클라리넷 채재일 수석
호른 Samuel Jacobs 수석
트롬본 Alexandre Faure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홍석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전현정
대리 최난희
사원 손지수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사원** 김경오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이한신
책임 손대승
차장 김원재 유연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신재영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정태훈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 만찬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하단의 공통혜택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 ('kbssoforever')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yc@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감사 **고태관**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진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Symphony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Cantata
김영기 변호사
김원희
매크로통상(주)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Nocturne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한문규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NH투자증권
(주)유카스 정광훈 대표

Prelude
권정숙
김미래
김연주 BCS ASSET CONSULTING 세무사
김희진 포크가수
박병원
박옥균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박지현 KBS 아나운서
박향미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유순신 (주)유앤파트너즈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유민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장희용 변호사
전희재 노무사
정선덕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최정아
(주)코스모스악기

2026년 협찬 기업

비씨카드(주) **(주)코리아타임스** **(주)우리카드**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주)서울경제신문**	1억원 이상
(주)신한은행	3천만원 이상
엘앤티렉서스(주) **씰리코리아컴퍼니(유)** **대한소방공제회** **(주)소다**(현물협찬)	1천만원 이상
(주)광주은행	5백만원 이상
일동후디스(주) **유한킴벌리(주)** **(주)메이블** **(주)닥터맘**	임산부음악회 물품후원

Life ON Sealy

오늘의 당신을 지지합니다

씰리침대 구매문의 : 1670-2152



KBS SYMPHONY ORCHESTRA
70TH ANNIVERSARY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